

정개특위 곧 가동... 선거제 개편 탄력받나

민주 8·한국당 6·바른미래 2·비교섭단체 2명 특위 구성 완료 연동형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 입장차는 여전

여야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가 특위 위원 정수를 놓고 이 싸움을 벌이면서, 하반기 국회 개회한 지 석 달 가까이 지난 이제서야 가동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초 명단 제출을 하기로 약속한 17일을 하루 넘긴 이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위원을 발표했다. 앞서 여야는 정개특위를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꾸리고, 비교섭단체 몫 2명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한 명씩 가져가도록 합의했다.

각 정당이 제출한 명단을 보면, 민주당 김종민(간사)·원혜영·박병석·김상희·박완주·기동민·이철화·최인호 의원, 한국당 정유섭(간사)·김학용·정양석·장재원·장석춘·임이자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정됐다.

또, 바른미래당 김성식(간사)·김동철,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인 정의당의 심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라 예상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각 당의 선택이 달라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발(發) '보수대통합론'으로 야권 정개특위 이수가 부상하는 점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말하는 선거제 개편은 크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보수정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을 강하게 희망한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으로 현재보다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관건이다.

2016년 20대 총선과 지난해 대선, 올해 지방선거까지 3년 간 선거에서 연연승하며 한 차례도 패배한 적 없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참패하

며 위기감에 빠지자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거론되는 등 이전보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많아, 보수정당들은 한국당 역시도 실상은 민주당처럼 개편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상황이다.

선거제 개편은 어느 한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어려운 점이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는 어차피 합의제다. 어느 한 당이라도 합의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상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이므로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독려하며 성과를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현장

보수2야 "고용세습 국조 추진"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공방... 여 "감사결과 지켜봐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일제히 꺼내 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정부를 '노조'에 포획된 정부'로 규정하고 "노조와의 유착 문제가 이번엔 증거로 나타났다"며 "더욱 분노하는 것은 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청년의 안타까운 목숨값으로 노조원들이 고용세습 잔치판을 벌였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장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몰랐다면 시정 운영 역량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생활 직폐를 해소하고 공청사 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자행되는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이야말로 공청사회를 저해하는 고질적 직폐"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정권의 고용세습 사태에 대해 국민이 실상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일에 대한 진상

조사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를 놓고 야당의 목소리가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당과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해 '현대판 을서체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부도덕 없는 이 땅의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해 실력을 갖춰도 갈 데가 없는 것이 적폐"라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법안이 통과되도록 양당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이 같은 국정조사 추진 요구에 민주당은 일단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방침인 만큼 감사결과를 살펴보고 난 뒤에 국정조사 필요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문제는 원리원칙대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려보고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해야지,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장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시정 진입 시도로 파행을 빚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 항의하겠다고 시정 진입을 시도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여 "대기업 독점 구조 바꿔야" vs 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기재부 국감

1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성장률에 침담하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혁신 성장으로 방향을 돌리며 방어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감에서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며 "경제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보다 하위 20%의 소득은 줄고, 사상 처음으로 최상위층의 소득은 두 자릿수로 늘었다"면서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이 되리라고 보나. 이는 분배에 의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경호 의원은 "투자, 고용, 소득분배, 기업 심리, 선행지표 등 각종 경제성장지표가 최악이고, 서민 체감경기는 더 안 좋다"면서 "정외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주요 정책이 거기에 함몰돼 있는데, 부총리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2년 임금주도 성장을 얘기한 뒤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 여기까지 왔고 청와대에는 이 허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총리는 1년 반 동안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책임질 때가 됐다"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설득하든, 부총리가

사퇴하든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5년 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나 아니냐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대기업에 경제성과가 독점되는 과거 성장정책으로는 못 돌아간다"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1년간 서울 강남 부동산 급등으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면서 9·13 대책으로 급한 불은 꺾지만, 추가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양극화 등 소득 왜곡 상황에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수출이나 대기업 기여도 중요하고, 혁신성장을 포함한 규제 완화, 전통제조업과 신산업이 균형 잡히게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년 반 경제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너무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2 13 14 15 16 17 18 18
2,500명 4.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孫 "유승민, 한국당 갈 리 없다"

라디오 방송 출연... "보수대통합 정체성 의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8일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손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여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바른미래당 의원 11명이 한국당으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여의도에 돈다'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내가 이 대표를 아주 잠깐은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당 대표가 다른 당의 11명이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냐. 저는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금 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보수대통합은 정치적인 이합집산으로 여쭙고자 하는 것"이라며 "보수에서도 과거의 수구 보수, 냉전 보수, 쫓겨나 보수는 극소수로 한정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보수대통합을 하겠다고 하면 보수대통합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한국당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영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황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였다. 근대 박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킨 정당에서 박근혜를 다시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 세력은 다음 총선에서 조그맣게 저 먼 우측 끝으로 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대표가 한 국당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갈 리 없다"며 "유 전 대표가 새누리당을 뛰쳐나올 때 개혁신당 보수를 포획하며 바른정당을 세웠고 대통령 후보도 나갔다. 지금 한국당의 저런 행태를 보이는데 유 전 대표가 무슨 명분을 갖고 들어갈지"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학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M.Div.)	65	
		신학(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일반대학원	박사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통리학과(D.C.S.)	15	
		통합예술통리학과(D.C.S.)	10	
	석사	신학(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